

새만금 7개 SOC 사업 예산, 국회서 3017억 증액

민주 도당 “좌초 위기서 정상 추진에 큰 기대감”

도민 역량 결집 예산심의단계 벼랑 끝 협상 이끌어낸 성과 평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이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보복적 예산 삭감속에서 새만금의 속도감있는 개발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새만금 잠버리대회 파행이후 좌초 위기에 빠졌던 새만금 SOC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3017억원이 증액되며,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은 정상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이번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으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2선석),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 구축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으며,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산업용지 등 새만금 내부개발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새만금 예산의 증액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약 60조 세수부족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3대 악조건 속에서 민주당은 전북도민의 지지와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처절할 정도의 절박 협상 과정을 통해 좌초위기에 몰린 새만금을 희망의 새만금으로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특히 전북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대폭 증액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봤다.

새만금 신항 역시 당초 해양수산부가 기재부에 요구했던 만큼 예산이 복원돼 2026년 2선석 우선 개항에 탄력이 붙게 되었고, 새만금 지역과 항만·공항·철도·광역교통망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예산 또한 국회단계에서 대폭 증액되며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및 투자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새만금 인입철도는 2023년 예산으로 37억원이 반영돼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 용역이 2024년도에 완료될 예정인 바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돼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새만금 환경 생태용지 2-1단계 및 2-2 단계 사업과 새만금 내부개발(농생명용지, 방수제

등)은 새만금 MP변경에 맞춰 2025년에 반영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좌초 위기에 빠졌던 새만금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돼 새만금 사업 정상 추진에 큰 기대감을 갖게 됐다”며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애쓰신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서삼석 예결위원장, 강훈식 간사에게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애써주신 전북도민들과 출항인사들,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이원택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김성주·김운덕·안호영·김수홍·신영대·윤준병 의원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관계자들, 그리고 사발(김정식 위원장)투혼과 마라톤(박정규 도의원)등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눈물겹게 헌신하신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북 도·시·군의원들 모두에게도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더욱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으로 새만금에 더 많은 기업과 투자가 몰려오고, 전북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



전북도의회 강동화·권요안·김슬지·염영선·오현숙·윤영숙·전용태·한정수 의원이 지난 2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연합회의가 선정한 '제1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왼쪽부터, 한정수 의원, 전용태 의원, 윤영숙 의원, 오현숙 의원, 국주영은 의장, 염영선 의원, 김슬지 의원, 권요안 의원)

민생해결·지역발전 기여 공로 인정

강동화·권요안·김슬지·염영선·오현숙·윤영숙·전용태 한정수 도의원, 시도의회위원장 선정 '우수의원대상' 수상

전북도의회 강동화(전주8)·권요안(완주2)·김슬지(비례)·염영선(정읍2)·오현숙(비례)·윤영숙(익산3)·전용태(전안)·한정수(익산4) 의원이 지난 2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연합회의가 선정한 '제14회 우수의원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원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 연합회의가 광역 시·도의원 가운데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생해결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14회째를 맞이했으며,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이 상패를 전수했다.

이날 수상 의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의정활동을 했을 뿐인데 이런 상을 받게 되니 송구스럽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더 열정적으로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국주영은 의장은 “새만금 SOC 예산 복원 투쟁 등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 의회로 거듭나는 내년도 도민을 위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정읍에 '국립 숲체원' 들어선다

민주 윤준병 의원, 용역비 1억7400만원 확보 총사업비 270여억원 투입...5년에 걸쳐 조성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정읍에 '국립 숲체원'을 유치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예산 1억7,400여만원(용역비)을 확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후 5년에 걸쳐 총사업비 약 270억원(녹색자금 100%)이 투입돼 정읍에 국립숲체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국립 숲체원은 숲 환경을 활용한 산림교육·치유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화공간으로서, 생애주기별(유아·청소년·중장년층 등), 대상별(취약계층, 가족, 단체 등) 숲체험 활동을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최근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맨발 황



토길 등을 위한 특화공간도 운영된다.

남상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5월부터 권역별 산림교육·치유 시설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해왔으며, 정읍 관내 국유림 대상 조성 가능지를 조사(9월)한 후 정읍시 북면 일대에 신규 국립숲체원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준비 '분주'

128년 역사 담아 더 특별하고 화려하게

도민 참여 전야제·출범식서 플래시몹·릴레이 응원 영상 등 다채 출범식 준비 외 범국민 인지도 확산 위해 온·오프라인 전방위 홍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는 128년의 역사를 새기고 더 특별한 전북자치도로 대 전환에 비상하기 위한 첫 출발점인 출범 기념행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북자치도의 범국민 인지도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등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은 내년 1월 18일 오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도내·외 각계 인사를 비롯해 도민 2,000여명이 참석해 자치도의 첫걸음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도민들의 플래시몹 공연이 이어지며, 릴레이 응원 영상, LED 퍼포먼스, 출범을 알리는 대북울림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자치도 출범을 축하한다.

출범 당일에는 '새로운 전북을 알리는 출범식'과 함께 '행정정보시스템 변화'를 알리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특별자치도 신생아 축하 이벤트',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 '유통기업 '특별 할인 행사'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같은 출범식 준비 외에도 범국민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분주한 상태다.

가토동 현수기를 비롯해 방송 캠페인 등 특별자치도 출범을 전후로 전방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는 도내 금융권과 특화 예·적금 상품을 출시해 한시적이나마도 민들이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관심 유발과 불업 조성에도 나섰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특화상품인 'NH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을 출시하고 연간 평균잔액의 0.1%는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후원금으로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은행도 지난 19일 D-30일을 맞아 고금리 상품인 '전북특별자치도 동행적금'을 출시하고 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염원하는 전북도민의 열기를 북돋는데 힘을 보탤다.

D-10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기념우표'를 발행해 새로운 전북을 알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전제품 유통기업과 대형마트와 출범기념 판촉할인행사도 펼치기 위해 기관·기업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알기 쉬운 전북특별자치도 웹툰' 제작 등 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

민선5기 전북도 특별자치도 추진단은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사명을 안고 태어났다. 도민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 수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순간을 도민들과 기념하기 위해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명품삼천천변길 조성 방안 모색

최형열 도의원, 전문가·주민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시민 안전 확보 위해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제안대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관련 전문가와 주민들을 초청해 명품삼천천변길 조성 정책 토론회를 갖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최형열 의원은 "삼천천은 많은 시민의 운동 및 휴식 공간이자 각종 문화 예술의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임에도 전주의 다른 천들과 달리 야간 조명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저녁 시간 이용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명품삼천천변길 조성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고선영 교수는 "전주시의 북쪽으로는 오송제, 서쪽은 기지제, 동쪽으로는 아중호를 따라 시민의 복합휴식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되어 있는데 남쪽의 삼천천은 가로등 설치조차 미흡해 안전을 위협할 정도라며 하천종합정비계획 시 야간 경관조명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형기 교수는 "수변공간이 자연생태와 사람의 소통 공간으로 밤에도 즐겁고 안전한 삼천천이 되기 위해서는 야간경관 조성이 필요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공간이자 삶을 영유하는 일상적 공공공간을 외부인도 좋아하며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축사사무소 주규남 대표는 "안전하고 생활체육시설 등이 잘 정비된 부



산의 온천 천변길, 안성의 안성천변길, 순천의 동천천변길 등을 제시하며 삼천천의 산책로는 다른 지역처럼 야간 보안등, 공중화장실 등을 가깝게 설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상인연합회 심성욱 회장은 "기지제, 아중호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 쉰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며 삼천천도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의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삼천천은 오랜 역사와 문화, 생태계가 공존하는 휴식 공간임에도 방치돼 왔다"며 도시민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지방자치 의정정책 부분 2년 연속 '대상'

환경부 군산시의원



환경부 군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내운1·2동)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례 의정정책대상(이하 의정정책대상)을 수상해 전국 지방자치 의정정책부분에서 2년 연속 '대상' 수상의 영예를 거머쥘다.

본 대상은 의정평가 전문가인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에 기여한 우수의원을 종합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세부평가 항목은 △조례 제·개정 발의 실적 △결의안·건의안 발의 실적 △주민 의견 수렴 및 처리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 실적 △예·결산 심의 처리실적 등으로 의정활동을 전반적으로 반영한다.

환경부 의원은 5선 의원으로서 작년 7월 제9대 군산시의회 개원 직후 시정질 3건, 건의문·결의문·성명서 7건, 자유발언 25건, 조례발의 24건 등 집행부에 대해 송곳 같은 견제와 대안 제시로 실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이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담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환경부 의원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했을 뿐인데, 연이은 수상 성과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민생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의회 내년 사자성어 '휴수동행'

'시민과 함께 동행, 시민행복 위해 정진' 의지 담아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우)가 2024년 의정활동 목표 사자성어를 '휴수동행(携手同行)'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휴수동행(携手同行)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다'는 뜻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동행하며 시민행복과 익산발전을 향해 정진하자는 시의회의 의지를 담았다.

내년도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며 저출생,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 관광 활성화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손을 잡고 현재의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과고를 헤쳐나가 시민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익산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종우 의장은 "갑진년(甲辰年) 새해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드리며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익산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김영명 예방 지름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